

목포시 새해부터 공영 시내버스 달린다

직영·노선입찰형 준공영 체제 전환
15개 노선, 128대로 노선 개편
BIS 고도화·차고지 등 인프라 확충

목포시가 2025년 본격적인 시내버스 공영제 시행에 맞춰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 차고지 조성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목포시는 그동안 민간이 독점 운영하던 시내버스를 내년부터 공영화하고, 직영과 노선입찰형 준공영제가 경쟁하는 공영버스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목포시의 공영버스는 노선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1개 권역은 시에서 직영하고 3개 권역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다.

목포시는 앞서 시내버스 노선을 기존 20개 노선, 137대에서 15개 노선, 128대로 개편했다. 지난 9월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3개 권역을 운영할 위탁사업자로 금호익스프레스(주)와 마창여객(주), ㈜신흥운수 등 3개 업체를 선정했다.

시내버스 공영화에 맞춰 다양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을 설치해 버스 번호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고, 버스 도착시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시 제공〉

또 시내버스 운영에 필수적인 공영 차고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2025년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영 차고지는 목포대교 인근에 사무공간과 정비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충전시설 등을 포함해 70대의 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9500여㎡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삼학도 차고지 과밀화 해소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차고지 인접 국유지를 추가 확보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를 연초 11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14대를 추가 도입하고, 스마트 승강장 확충, 버스정보안내기(BIT), 냉난방 의자 설치 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영버스 도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내년 공영 시내버스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예비운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기자 노트

신안 섬 주민의 고난과 행복



이상선 서부취재본부 부국장

"섬 고향에서 오래 사니 이런 행복도 있소 안..."

요즘 신안 섬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다. 주민들은 척박한 땅의 농업과 험난한 바다의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면서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육지에 오가지도 못한 험난한 세월을 보내왔다. 하지만 섬 주민들은 "지난날 지옥 같은 생활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 서부취재본부 부국장

이유는 햇빛·바람·핀드에서 지급되는 수익 배당 3중 세트의 연금이 평생 지급되기 때문이다.

신안은 몇 년 전만 해도 섬의 지리적 여건상 교통 환경과 생활 편의 시설 등 모든 것들이 열악해, 그 불편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조상의 혼을 남겨둔 채 고향을 등지고 떠나기 시작하면서 '인구소멸 위기'라는 최악의 시기를 맞았다.

그러나 2006년 민선 4기 박우량 군수가 취임해 세계 시대 변화와 섬이라는 지역 환경에 맞춰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해 신안이 새로운 모습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세계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하고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실익을 안겨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었다.

박 군수는 그동안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성공시켰으며, 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폐쇄

적인 마음까지 바꾸어 놓았다.

주민 햇빛연금과 아동햇빛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진행되면서 내년부터는 일부 지역에 바람 연금이 지급되고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안군민펀드도 내년에 출시될 예정 이어서 신안군민은 앞으로 연금만으로도 평생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2030년까지 흑산을 제외한 신안 전 지역 연도-연륙교 건설 사업과 세계 최대의 섬 국가정원 사업이 마무리돼 현재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완공되면 앞으로 3중 연금에서 발생할 수익과 함께 납부하지 않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1004살 행복 시대'가 활짝 열린다.

특히 배당 연금은 군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전액 발전사 수익 중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배당금 형태여서 주민들은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여기에 획기적인 신안의 변화에 따라 귀촌한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섬 지역 빈집에 대한 수요가 늘고 땅값도 오르고 섬 주민들은 호재에 신바람이 나 있다.

신안주민들은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시대 전환으로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켜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셈이다. /sslee@kwangju.co.kr

해남 '4est수목원'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지정

희귀 56종 등 식물자원 85종 보전

해남 '4est수목원'이 지난해 산림생명자원 관리 기관에 이어 산림청 국립수목원으로부터 '국가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됐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희귀·특산식물의 수집·증식·보존·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산림청은 보전기관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정수목원에 대한 필요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생물자원의 체계적 증식관리를 위한 보전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4est수목원'은 대흥란 등 희귀식물 56종, 좀비비추 등 특산식물 29종 등 총 85종의 식물자원을 현지의 보전하고 있다.

국가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은 전국에서 20개소가 지정됐다. 4est수목원은 2023년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제2024-02호'로 지정됐다.

해남군 현산면 봉동마을에 위치한 4est수목원은 식물학을 전공한 김건영씨 부부가 5년여에 걸쳐 조성한 곳으로, 6만여평(19만 8000여㎡)의 숲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지정된 해남 '4est수목원'.

〈해남군 제공〉

을 따라 14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있다. 2019년 해남 최초 민간 사립수목원으로 등록됐으며, 인문학과 수목원의 만남을 주제로 동서양의 철학적 이상향이 담긴 소정원들이 다채롭게 조성

돼 있다. 8000여 그루를 식재한 수국정원은 국내 최대 규모로 품종원에서는 김건영 대표가 전국을 찾아다니며 수집한 50여종의 희귀 수국도 보유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 내년도 국도비 예산 5183억원 확보

무안군은 2025년 국도비 예산을 올해보다 5.7%(281억원) 늘어난 5183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안군이 확보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2692억원(총사업비 2조6921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106억원(492억원), 영산강IV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265억원(9698억원), 무안 환경-해제 국도 건설 59억원(439억원) 등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도리포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20억원(1745억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12억원(30억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58억원) 등이 포함됐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무안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2억원(497억원)과 삼향 및 청계농공단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 113억원(188억원), 망운하수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41억원(102억원), 남악 기후대응 도시숲조성 사업 15억원(50억원) 등이 반영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군, '탄소중립 나무 심기 평가' 최우수상

진도군이 전남도가 주최한 '2024년 탄소중립 나무 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진도군은 도시 숲, 참어 숲, 생활 숲 조성을 적극 실천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시상하는 '탄소중립 나무 심기' 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진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365 꽃피는 진도 만들기' 추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조림 사업과 숲가꾸기 등 공익적 산림기능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

를 받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며 "생활 속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어 관광 진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